

【선생님, 화이팅!!】

안녕하세요.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.

12월 27일자 「리빙구 오카야마」의 칼럼 「배움의 기억」에 제 글이 게재되었습니다.

칼럼에서는 현대 선생님들의 응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담아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큰 영향을 받아 지금의 자신의 원점이 된 자신감을 얻은 담임, 이노우에 선생님과 에피소드를 게재해, 전 회에 이어 기고문 소개가 되었지만,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.

■■ 이하, 12월 27일 리빙구 오카야마 「배움의 기억」에서 인용 ■■

[배움의 기억]

「배움」에 있어서 제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은, 오카야마시립 시카타초등학교 5~6학년 때의 담임이었던 이노우에 선생님입니다.

어쩌면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, 당시의 저는 사람들 앞에서 잘 이야기도 못 하고, 「소극적」이어서 성적표에도 「좀 더

적극적으로 행동할 것」이라고 기재돼 있었습니다.

그런 성격 때문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「이 문제 아는 사람?」이라고 질문해도 손을 들지 못했고, 선생님께서 「오모리, 이 문제 알겠어?」라고 지명이라도 하면 떨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 할 뿐이었습니다. 그래서 학급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존재로, 지금은 오카야마 시장을 맡고 있지만, 당시의 동급생들 중 저를 기억하는 사람은 매우 적지 않은가 싶습니다.

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IQ 테스트가 있었습니다. 좌우에 나열된 가감승제 수식의 두 답변 중 어느 것이 큰가를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. 속도와 정확성을 겨루는 시험이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그때는 학급에서 가장 빨리 풀 수 있었습니다. 그래도 소극적인 저는 가장 먼저 손을 들 수 없었고, 언제나처럼 머뭇머뭇하다가 우연히 이노우에 선생님과 눈이 마주쳐 할 수 없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는데 그 후에도 한동안 학급의 누구의 손도 오르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

이노우에 선생님은 내 답안을 대충 확인하고 답이 모두 맞는지를 보시고는 「정말? 오모리니. 잘 하잖아」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좌우로 흔드셨습니다. 그 모습을 봤을 때 무엇을 해도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에게 자신감이 붙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

그리고서 바로 자신이 변화되진 않았지만, 지금 생각하면 이 때 얻은 자신감이 지금 저의 원점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.

선생님의 한마디 한 동작은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에게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. 앞으로의 오카야마의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선생님, 화이팅!!

오카야마 시장 오모리 마사오

■■ 인용은 여기까지 ■■

시간은 참으로 빨라 금년도 이제 몇일. 이번이 연 내 마지막 메일 메거진 입니다.

이 겨울은 따뜻한 겨울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침저녁은 싸늘합니다.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빛나는 신년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함과 동시에 새해도 오카야마시의 더욱 큰 비약을 향해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.